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소식

창간일 : 1984년 9월 28일 / 발행인 : 백순구 / 편집인 : 김현 / 대표전화 : 033)741-0114 / 기획, 편집 : 대외협력실 033)741-1021 / www.ywmc.or.kr

##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크게 도약 -



우리 기관이 7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평가에 따라 우리 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3회 연속으로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19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 4년간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

곤, 이하 인증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이번에 진행된 3주기 인증평가는 환자 및 직원 안전·감염·의약품·인적자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정 암기 아닌 직접 시행과 시연으로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 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 기관은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의료 및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조사위원으로부터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 520개 조사항목에 따른 서류 검토와 직원 및 환자·보호자 면담 등 심층적인 평가를 받았다.

백순구 의료원장은 "기나긴 준비과정의 고통과 수검 기간 동안의 긴장을 인내하고 이뤄낸 우리 기관 구성원 모두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라며 "강원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는 3주기 의료기관 인증 준비부터 획득까지...>

- 2018. 09. 06. 의료기관 인증 실무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인증기준별 실무책임자 선정
- 2018. 10. 16. 인증평가 원내 설명회 및 기본교육
- 2018. 11. 01. 인증실무책임자 세미나 개최
- 2018. 11. 12. - 15. 1차 현장점검
- 2018. 12. 17. - 20. 2차 현장점검
- 2019. 01. 21. - 24. 3차 현장점검
- 2019. 03. 05. - 08. 1차 자체조사
- 2019. 04. 02. - 05. 2차 자체조사
- 2019. 04. 16. - 19. 3차 자체조사
- 2019. 05. 07. - 10. 최종리허설
- 2019. 05. 13. - 17. 보직자 라운딩
- 2019. 05. 21. - 24. 인증평가 수검
- 2019. 06. 19. 의료규정 TFT 구성
- 2019. 07. 05. 3주기 인증 획득 통보

### "청결·소독은 올리고! 감염은 내리고!"



중앙공급실 수술실(멸균물품보관실) 항암조제실(무균조제실) 수술용 물품세트와 같이 각종 의료물품(원웨이) 시스템 구축이, 항암제·신생아중 환자실용 TPN 등 무균상태 약제를 조제 멸균 등 작업장별로 공간 구분, 수술실하는 무균조제실은 무균조제대와 전실(조제실과 일반실 분리 공간)이 설치 됐다.

###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동제세동기(AED) 층별 확대 배치 심정지 등 비상상황에서 환자와 내원객 안전에 빈 공간이 없도록 외래센터 각 층과 휴디관 지하 공간에 제세동기를 확대 설치했다.

### "안전한 치료를 위해!"



소아진정치료실 진정약물 투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진정 전 환자설명, 환자평가, 진정 전·중·후 환자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특히 외래영역 환자의 안전한 진정치료를 위해 외래센터 2층 외래주사실 내에 소아진정치료실을 설치했다.

### 3주기 의료기관인증 준비에서 부터 획득까지...부서 후기

## 쉽지 않았지만, 함께라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인증평가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마음도 있었고 구체적인 부분을 빨리 공지하고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시설, 환경, 지침 등 여러 가지 결함들은 많았습니다. 인증평가의 특성상 환자를 가장 밀접하게 대하는 간호국이 가장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항상 노력해주셨던 행정부서, 시설팀, 총무팀, 구매관재팀, 의료정보팀, 약제팀 등 모든 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정진료관리실은 이 모든 부분을 총괄하며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우 크셨을텐데 고생하셨고 감사사를 드립

니다. 준비과정 중에 기관차원에서 간호국 건의에 귀 기울여 주시고 즉시 해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증평가가 끝나고 난 후에는 힘들었던 기억보다 직원과 환자안전에 좀더 집중과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인증평가 준비도 기분 좋은 설레임, 이번에 느꼈던 끈끈함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간호국 -

3주기 인증항목에 따라 보완할 내용들이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처리 방법에 따라 H/W와 S/W로 분류되었는데 S/W의 처리는 대부분이 전산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정보팀은 많아진 요구사항을 전산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1,2주기 인증 때 개발된 전산 내용이 흩어져 있어 심사위원에게 제대로 답변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모든 직원이 OCS에서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산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전산 덕분에 평가를 잘 받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심사강평 때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전산이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으면서 의료정보팀의 역할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한편으로는 인증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구현한 의료정보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의료정보팀 -

시설팀은 시설 및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만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만들어 가는 각 영역과 사항을 그림자처럼 지원했습니다. 평가 준비를 하며 구성원의 열정과 저력, 자긍심과 깊은 신뢰가 이번 인증의 결과를 만든 작은 단초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직원의 주인 의식이 만들어 낸 달콤한 열매를 보며, 선인의 말씀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近者說(근자설) 遠者來(원자래)"를 떠올리며 앞으로

우리 병원을 찾는 환우들이 늘 기뻐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의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시설을 개선하여 환자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각오를 다잡아 봅니다.



- 시설팀 -

이번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도 감염관리 항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감염관리는 결코 감염관리실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심 가져 주시며 최선을 다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환자안전 전을 위한 노력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땅에는 더욱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과 항생제 내성균 증가, 여러 감염관련 사건

들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거 중심의 감염관리의 기본과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병원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관리실 -

우리 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분야별로 준비하고 자체 조사위원을 통한 실전과 같은 자체조사 수검을 실시하며 나름대로의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새롭게 바뀐 일부 기준과 문항으로 또다시 우리들에게 압박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준비를 하였고 그 결과 성공리에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인증평가를 앞둔 금년 3월부터 행정분야를 총괄하면서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 추진위원회와 자체조사위원, 추진위원, 실무위원, 수행요원 등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한분 한분이 소중한 사람들로 다가왔습니다. 특

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은 미화부 직원, 주차관리 직원들과 보안요원, 진료예약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우리 기관에 근무하시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한 열정과 추억은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열정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 행정국 -

의무기록팀은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 진단단 일치를 위한 지표 관리, 전공의 의무기록 작성교육, 미비기록 관리 등을 통해 의무기록 작성의 적시성과 충실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의무기록/의료정보관리 부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면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며 여러 부서와의 협력과 조화를 이끌고 의무기록 완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의무기록팀 전 직원과, 바쁜 중에도 의무기록 완결을 위해 힘을 더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러한 노력이 평가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의무기록팀 -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진인사대천명" 첫 번째는 이번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는 준비를 다 끝내고 들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평가를 준비하는 내내 "정말 멋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

다. 더불어 이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 우리 기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영원히 기원하면서 저희 핵의학과 직원일동도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핵의학과 -

3차례의 현장점검과 자체조사를 통해 우리 기관 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취약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며 필요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환자안전과 질 향상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3주기 인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의료규정의 제-개정을 통한 업무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의료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부서간의 의견조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지만 의사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증평가의 끝은 끝이 아닌 새

로운 시작이다"라는 말과 같이 인증평가를 통해 우리 기관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을 통해 다시금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관 모든 교직원을 구심점으로 모이게 해주었던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훌륭하게 마치며 헌신적 노력과 열정을 함께 해주신 교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적정진료관리실 -

지상메세지

“물 한잔의 사랑”

정승우 목사(교목실)

할리우드의 영화감독, 윌리엄 와일러는 1959년에 <벤히>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상 11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은 영화 후반에 등장하는 웅장한 전차 경주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벤히와 예수님이 우연처럼 삶의 고비마다 스쳐지나가며, 서로 상대방에게 물 한잔을 건네는 장면들입니다. 영화 전반부에서 노예로 끌려가던 벤히가 나사렛 인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쓰러집니다. 이 때 예수님이 로마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벤히에게 물 한잔을 건넵니다. 이후 삶의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유력인사의 양자가 된 벤히는 한센병에 걸린 어머니와 누이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형을 언도받고 끌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가혹행위로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 차례 쓰러 집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벤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물 한잔을 건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목말라 쓰러졌을 때 물을 건넰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벤히>는 우연히 서로에게 건넰었던 물 한잔의 인연이 구원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물 한잔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이웃을 위해 건네는 한잔의 물이, 결국은 목마른 자신의 영혼을 적시는 궁극의 생수라는 것을, <벤히>와 요한복음서는 가르쳐 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목마른 이웃들을 위해 시원한 생수 한잔 건네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갖들기를 기원합니다.

박경혜 교수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상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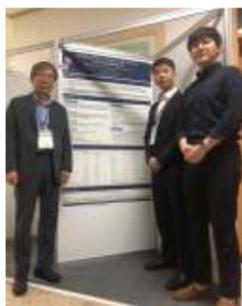


우리 기관 박경혜 교수(의학교육학과)가 5월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5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연구

부문 학술상을 받았다. 연구부문 학술상은 2018년 한 해 동안 의학교육에서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많이 한 의학교육자에게 주는 상이다. 박경혜 교수는 2018년 한 해에만 한국의학교육학회지에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raining using standardized patients on nonverbal behaviors in medical students', 'Experiences of medical teachers in flipped learning for medical students: a phenomenolog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OSCE score in medical students'등 세 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의학과 4학년 학생팀  
우수포스터상 받아



우리 대학 의학과 4학년 학생팀(김종현, 박지한, 안재형, 이시영, 이윤정, 이지예, 홍다훈, 지도교수 장세진 \_예방의학과)이

6월28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2019 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송전선로의 전자기파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H군 일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객의 소리

하늘이 보내주신 천사님이세요!



박두용 책임간호사(NSICU)

6층 신경외과 중환자실 박두용 선생님, 무척 많이 칭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웬만한 친절에 각박하신데 어떤 이유로 박두용 선생님을 적극 칭찬하시더군요.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항상 친절한 멘트로 대응을 하였고, 짜증 날만한 근무 환경에서도 늘 웃으면서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자를 케어해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미소 띤 얼굴로 아버지 마음을 녹이셨다고 하 는군요. 병원장님! 이런 선생님들이 많으 시겠지만 박두용 선생님에게 병원에서 포상금과 포상휴가를 주시고 최고의 친절 직원으로 채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계시 는 동안 불편함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두용 선생님을 적극 칭찬합니다. 이 선생님은 하늘이 보내주 신 천사님이세요!

이 글은 OO 환자분 보호자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7월 친절교직원 및 부서

지난 7월 추천함으로 접수된 친절교직원 및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친절부서 : 22병동, 36병동, 56병동, 71병동, 72병동, 81병동, 82병동, 93병동, 111병동, MICU, NSICU,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응급실, 재활의학과

▲ 친절교직원 : 차혜정(방사선종양학과), 박은영(산부인과), 김지예(성형외과), 강윤구, 이정민(소아청소년과), 조성민(신경외과), 이준영, 한병근(신장내과), 김성훈(외과), 이운석(응급의학과), 김지훈(이비인후과), 심광용(혈액종양내과 이상 교수), 김용훈(성형외과 연구강사), 김건우, 김한결(응급의학과), 엄재용(정형외과), 박준영(재활의학과 이상 전공의), 김은희(56병동), 박두용(NSICU), 안명화(응급실), 문정화(인공신장실 이상 책임간호사), 장채민(22병동), 최옥자(27병동), 성기완, 성영란(36병동), 정해원(51병동), 이기영(52병동), 김은미, 김희숙(56병동), 이정아(61병동), 김이삭, 김지숙, 윤도영, 이혜원, 차해진(71병동), 강보라, 노소림(112병동), 이은진, 최민수(TICU), 유민희(당뇨병센터), 조현미(소아청소년과), 조서인(수술실), 이화선, 한소리(외래 주사실), 이철중(외상응급실), 김정화(응급실 이상 간호사), 김경혜(신장내과), 김종희(외과 이상 간호조무사), 신윤재(36병동), 김채원(71병동), 강두혁(102병동), 이지아(모자보건센터), 박은미(비뇨의학과), 김소희(호흡기내과 이상 보조원), 정연순(총무팀 영양보호사) 이상 55명.

베스트 친절직원



강윤구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정아 간호사  
61병동



신윤재 보조원  
36병동

특별기고

“잠들 새가 없었던 미국수면학회를 다녀와서...”

내과 전공의 이영철

저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미국 텍사스 주 San Antonio에서 열린 '2019 SLEEP' 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내과부 교수님들께서 전공의들에게 해외학회 참석 기회를 주시고 많은 내과 전공의들이 해외 학회를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호흡기내과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학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2019 SLEEP은 미국수면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와 Sleep Research Society의 공동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수면관련 학회입니다. Henry B. Gonzalez Convention Center에서 미국과 전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의사, 간호사, 수면기사, 과학자들이 학회에 모여 훌륭한 강의와 열린 토론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이색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해외학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어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외학회 참여를 통해 다소 틀에 박힌 일정한 병원 업무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여유를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여러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병원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른 전공의도 해외학회 참석을 통해 전문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남은 전공의 수련 기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디지털헬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우리 기관이 차세대 생명건강 산업과 인공지능 및 IoMT(Internet of Medical Things)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백중수, 이하 'WMIT') 그리고 (주)엔디에스(대표 김중원, 이하 'NDS')와 손을 맞잡았다. 우리 기관은 지난 7월 4일 외래센터 7층 교수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두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AI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IoMT 및 인공지능분야 기업 공동 지원 ▲각 기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협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인 'MEDBIZ'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구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필수적

인 기술 및 지식, R&D자원 등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으로 IoMT 기반 융복합 의료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미래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관련 서비스 확장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실증 사업 확대 등 강원 지역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증뇌성마비 환아를 위한 보톡스 무료시술



재활의학과 박정미 교수팀은 2019년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뇌성마비 환아를 위한 보톡스(보툴리눔 독신A) 무료시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관 재활의학과와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엘리움 리움 특신A) 무료시술 행사를

보톡스 시술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직 및 이상 운동 등으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방법으로 근육 경직을 조절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소적으로 시행하여 시술 방법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박정미 교수팀은 2014년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부터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와 함께 매년 무료시술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 IOMP 실사단 방문



국제 의학물리전문인 교육인증위원회(IOMP) 실사단이 7월 24일 우리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방사선융합공학과가 IOMP의 인준을 받기 위한 2차 현장 실사 과정으로 각종 실습이 진행되는 우리 기관의 방사선 시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Arun Chougale 등 3명으로 구성된 실

사단은 병원 소개를 받은 후 PET, CT, MRI, X-ray, Tomotherapy 등 치료용 방사선 기기와 시설을 살펴봤다. 한편 이번 실사 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방사선융합공학과가 IOMP의 인준을 받게 되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국제 의료안전 분야 위상 강화와 의학물리전문인 양성 교육 기관임을 증명하게 된다.

## 60주년 기념 실버누리합창단 공연



개원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실버누리합창단(지휘 한정아)이 지난 7월 8일 외래센터 로비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30여 분간 진행된 공연에서 '즐거운 나의집', '상록수', '훨훨 날아요' 등 6곡이 이어졌다. 55명으로 구성된 실버누리합창단은 2017년 11월 창단했으며 세상을 합창으로 소통하고 화음으로 조화를 이루자는 뜻을 지니고 있다.

## 60년 흔적 그대로... 맞저울 공개



일산사료전시관(위원장 안성규 교수·피부과)은 개원 60주년을 맞아 병원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맞저울을 의학관 1층 로비에 전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맞저울은 어영

교수(진단검사의학과)가 기증한 것으로 개원(1959년) 초기에 임상검사에서 사용한 것이다. 맞저울은 한 쪽은 시약, 다른 쪽은 추를 올려놓고 시약 무게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 जू디·문창모 장학생 및 모례리여성의료선교상 후보자 추천 공고

- 장학상명: 주디 장학생 / 문창모 장학생 / 모례리여성의료선교상
- 신청기간 및 지원자격: 2019년 9월 27일(금)까지  
 [주디·문창모 장학생] 의료선교에 관심이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원주의과대학 재학생  
 [모례리의료선교상] 여성의료선교사로서 선교정신을 이어받아 그 뜻을 발전시키는데 공이 큰 자
- 지원방법: [이메일] jmc2014@yonsei.ac.kr  
 [우편·방문] (우편 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디모례리센터
- 제출서류: [서식요청 033-741-0234] 1) 신청서 1부 2)자기소개서 1부 3)추천서 2부  
 4)성적증명서 1부(주디·문창모 장학생) 5)선교활동 소개서 및 증빙자료(모례리의료선교상)

###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2019년 8월 26일(월) ~ 9월 9일(월) / 3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30분)
- 교육회비: 6만원 / 식비 및 교재비 포함
- 교육내용: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연명치료와 존엄사, 호스피스 현장견학, 병동봉사의 이해 등
- 자격요건: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 모집기간: 2019년 8월 23일(금)까지
- 문의 및 신청: jmc2014@yonsei.ac.kr / 033-741-0234